

안전한 양록산물 생산을



안 무 현
한국양록협회 부회장

우리 양록농가에서 가장 바쁜 계절을 맞이했다. 녹용과 녹혈을 채취할 민반의 준비를 서둘러야 하고 자록의 생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년동안 열과 성을 다한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계절인 것이다.

농장외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국내 양록실정을 완전 오픈하여 사슴에 대한 신비를 적극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며, 내적으로는 사슴의 건강관리와 농장청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이다.

과연 우리 양록농가에서는 녹용과 녹혈을 찾는 고객에게 얼마만큼 믿음과 정성으로 맞이하고 있으며, 자록생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새로운 점검이 필요한 때다.

적기 절각으로 양질의 녹용 생산해야

최근들어 국내 양록농가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녹용과 녹혈을 접한 소비자들 또

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시급히 서둘러야 할 과제가 있다면 바로 양질의 녹용을 생산하는 일이다. 양질의 녹용을 생산하는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아닌 적기 절각이다. 절각의 시기는 사슴의 종류와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나이가 많은 사슴은 낙각이 조기에 이루어져 새로운 뿔이 오랫동안 자라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꽃사슴의 경우는 낙각후 55~60일, 레드디어는 65~70일, 엘크는 80~90일 사이에 절각하는게 관행이나 녹용의 품질이나 생산성은 사슴의 개체별 영양상태와 기온 날씨에도 영향을 받는다.

옛날에는 『하지전녹용(夏至前鹿茸)』이라고 하여 하지전에 녹용을 잘라 복용하면 좋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하지전에는 뿔이 작게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며 꽃사슴의 경우는 7~8월에 가장 많이 절각하는 시기이다. 이와같은 실정을 고려하여 농가에서는 평소에 사슴을 잘 관찰하여 적기 절각으로 양질의 녹용을 생산해 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시키는 일이며, 국제경쟁력 강화의 첩경이다.

그리고 우리 양록농가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부산물인 녹혈생산이다. 녹혈의 위생은 농장의 청결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하루아침에 해결될 사항은 아니나 농장주의 꾸준한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절각시기에 맞춰 녹혈 손님에게 보다 색다르고 신선감을 주기 위한 지구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불결한 장소를 피하는 일이다.

각종 오물이 널부러져 있는 사슴장에서 사슴을 낚아놓고 녹혈을 받아 손님에게 건네주는 것은 꺼림칙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다소 경비가 들더라도 위생적인 시설에서 절각을 시행해야 한다. 한 예로 사슴이 안정감을 취하도록 절각장 주위를 천막으로 두르고 바닥에는 파아란 잔디를 심어 소비자들이 청결감을 느끼도록 해야한다. 고객 또한 기분이 고조되어 저절로 약이 되는 녹혈을 마셨다는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녹혈이 응고되지 않도록 첨가하는 주류나 드링크제, 한약재 등의 첨가물의 용량도 조절해야 한다. 고객이 보는 앞에서 녹혈의 양보다 많은 첨가물을 타는 경우 우리 스스로 녹혈판매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임을 깨달아야 한다. 녹혈이 응고되지 않도록 극소량의 첨가제 사용이 불가피하나 첨가제를 전혀 타지 않고 소비자를 맞는 농가도 있음을 볼때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어느 지방 양육인은 첨가제로 「감식초」를 사용하여 호응이 괜찮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중요한 것은 뛰니뛰니해도 나와 우리가족이 꺼리낌 없이 마실 수 있는 녹혈을 생산, 판매하는 일이다.

건강한 자육생산이 경영개선의 시발

지난해 가을에 교미하여 임신된 암사슴이 본격적으로 분만하는 시기가 바로 5월부터 7월 사이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번 실패하면 재산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슴은 분만전후에 불안감이 극도에 달해 흥분하기 쉬우므로 함부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야생성이 강한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새끼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린다.

대부분 사슴은 자연순산을 하므로 파수후 약 2시간까지는 새끼나 어미에게 아무런 지

장이 없으므로 가만히 지켜봐 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새끼가 역산이 되거나 난산이 될 경우에는 수의사의 도움을 받거나 목장주가 인공 배출을 시켜야 하는데 이때는 소와 같이 마구 잡기로 당기면 안되고 어미가 힘을 줄때 같이 힘을 주어 자연스럽게 꺼내야 한다. 분만후에는 어미가 본능적으로 새끼의 모든 후처치를 해주므로 농장주는 오염으로 감염이 우려될 때에만 새끼의 배꼽을 소독해 주면 된다.

그리고 간혹 어미가 새끼의 항문을 너무 심하게 핥아주어 항문이 헐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어미가 불안정을 느껴 새끼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표다. 이때에는 어미에게 불안을 느낄만한 행동을 삼가하고 안정감을 주어 미리 예방하는 것은 물론 솟사슴을 격리사육해야 한다.

특히, 새끼사슴에서 하리(설사)가 발생하는 일이 많은데 방치하다가는 치명적일 수 있다. 주로 장마철 급작스런 기온의 변화와 비위생적인 축사에서서의 세균오염이 주범이므로 예방이 절대 중요하다.

새끼는 생후 2~3주령부터는 풀을 먹기 시작하며 큰사슴과 같은 변을 누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어미들과 같이 두게되면 충분한 사료를 먹지 못하므로 새끼들만 드나들 수 있는 칸을 만들어 양질의 부드러운 풀과 단백질 함량이 17%이상인 사슴전용사료를 충분히 급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이밖에도 자육생산과 관련지어 언급할 부분은 많다. 농가에서 깊이 인식할 내용은 자육을 생산하여 건강하게 기르는 것이야말로 곧 농장경영 개선의 시발임을 알아야 한다.

부연하여 사슴이 태어나면 초유를 먹이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양육농가에서는 지금이 녹용 수확의 계절임과 동시에 자육출산 준비를 서두르는 시기임을 잊지마시고 경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